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3호 [루체 제26027호] 주제 107 (2018)년 6월 2일 (토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도이췰란드단체 인터네트홈페이지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포들에게 보내신 서한 어나가자》의 전문을 도이
김정은동지께서 제일본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문
선인총연합회 결성 60돐을 맞으며 충진과 재일

사설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자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담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뚜껑기세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굴속, 석탄광부분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물격전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중요재상간질들에게 던칠들과 근로자들의 견인물들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고 있다. 현실은 대중의 양강적 열의에 맞게 우리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길간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

시본과 책임으로 수행하는데서 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는

여러 일군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일군들은 대단한 당의 믿음과

기대를 담고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는 일군들이 참모리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야 하며 높은 실력을 지

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당시에 바라보면 강장하였다.

케이블로스조선문화원설립원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은

위대한 경도, 불멸의 70성상

자주의 가치 높이 백승 떨쳐온 불패의 강국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계략적 조선은 공화국 창건 70돐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철민의 실정미디어 월승의 신심과 용기를 복돋아주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자주적이며 과학적인 혁명로선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이어세우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걸어온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역사를 되새겨볼수록 이 땅에 자주로 존엄높고 자주로 부강번영하며 차지로 강대한 불폐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고 빛내여 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성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입장을 선도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존엄을 끌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주의 성세, 정의와 진리를 대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까?»

자주는 승리이고 정의이다. 이는 우리 공화국의 70년사가 출중한 역사의 철학이다.

풀이켜보면 조선혁명은 기존문화와 방법으로는 수행할수 없는 천인 미답의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였다.

자주의 가치를 높이 추구드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복사발전의 세시대, 주제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

혁명령도의 전기간 자주를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에 청진한 인민의 자주독립 국가를 일떠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이 뜨겁게 어려운다.

해방후 인민들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감퍼를 잡지 못하였다.

형형색색의 «혁명가»들이 나나라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을 두고 벌

의별 주장을 다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시대와 외세의존에서 출발한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을 절대로 허용치 않으셨다.

시대와 외세의존으로 나라가 막하고 민족이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는데 또다시 남의 손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내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일이었다.

황일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낸것처럼 우리는 새 조국건설로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신념이었고 트림없는 의지였다.

이런 철의 의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4(1945년) 8월 20일 군사장관간부들앞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 «혁명방법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무장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때 대하여 엄숙히 선언하였다.

두칠한 자주사상이 때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은 새 사회전선의 첫 시기에서 벌써 우리 조국이 무장하는 자주독립국가로 발전해나갈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 줄수는 절대로 자주로나마 힘으로 자주 독립국가건설을 잘해나가야 한다.

대국주의자들이 우리 당의 자주적인 정체인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때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선로선을 시비하면서 부당한 편파적으로 물을 강요할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해버리시였다.

조선혁명을 전진시킨이니라를 원정한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권은 독립국가의 기

본장표이며 자주적립장을 전지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요구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자주적인 경제건설로선을 고수하고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정력적으로 명도하였다.

이렇게 떠나가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합법이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자주의 힘으로 자주 독립국가건설을 잘해나가야 한다.

대국주의자들이 우리 당의 자주적인 정체인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때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선로선을 시비하면서 부당한 편파적으로 물을 강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축하였다.

이렇듯 역사와 현실은 자주를 원정한 자주권을 지지하는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경강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국에서 벌써부터 물길 속에 사회주의공업회의 역사적폐를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때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철학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